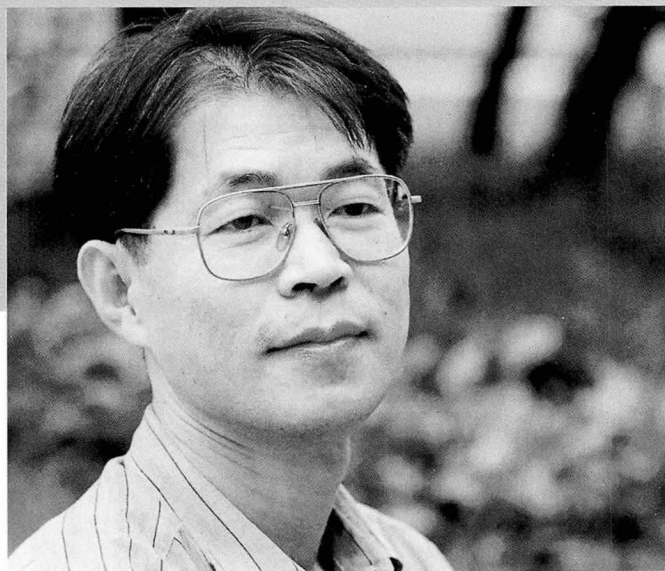


박해받은 책들의 연대기 기록한 '금서열전'

《'책'의 운명》 펴낸 이중연씨



1933년 5월 10일 베를린. 2만여권의 책이 불태워지는 동안 나치의 선전부장이던 괴텔스가 일장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환호성을 지르는 10만여명의 군중이 운집해 있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이 외설스런 것들을 불길로 집어던지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거야말로 전세계를 향해 낡은 정신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막강하고 상징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정신의 불사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같은 해 5월 평양.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계 형사들은 평양 시내의 서점을 이 잡듯이 뒤져 수백여권에 이르는 발매금지 좌익서적을 압수했다. “범죄를 선동하거나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안녕질서를 방해” 하는 불온한 책이라는 게 압수의 이유였다. 중일전쟁과 대평양전쟁을 눈앞에 두고 파쇼체제화하는 일제의 말기적 징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서 통해 사상적 지형도 읽기

책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사람들은 그림으로써 역사를 지우고 과거를 파괴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는다. 하지만 괴텔스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에서 “이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정신의 불사조가 일어”나 ‘풍속의 감시자들’을 역사의 범법에 세워 단죄한다. 추방된 문자와 박해받은 책이 기록이란 무기로 ‘영혼의 폭군들’을 복수하는 것이다.

책의 역사에는 검열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프로타고라스의 저작물들은 B.C. 411년 아테네에서 불태워져 한줌의 잿더미로 변했다. B.C. 213년에는 진시황이 자신의 왕국 내 모든 책들을 불태움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매장시키려 했다. 어디 그뿐이라. 우리 역사에

이 책은 우리 역사상 박해받은 책들의 슬픈 일대기를 기록한 ‘금서열전’이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권력의 부침에 따라 운명을 달리해온 금서들의 계보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 전파자들의 행적도 그의 역사적 수사망에 포착된다. 이씨는 금서의 역사란 한마디로 지배권력의 문화적 독점을 해체시키는 과정이지만 이런 독점 체제는 필연적으로 몰락과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도 ‘감시와 처벌’의 삽화는 곳곳에 음습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역사학자 이중연씨(41)가 펴낸 《'책'의 운명》(혜안)은 우리 역사상 박해받은 책들의 슬픈 일대기를 기록한 ‘금서열전’이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권력의 부침에 따라 운명을 달리해온 금서들의 계보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 전파자들의 행적도 그의 역사적 수사망에 포착된다. 이 책은 언뜻 사상사를 닮아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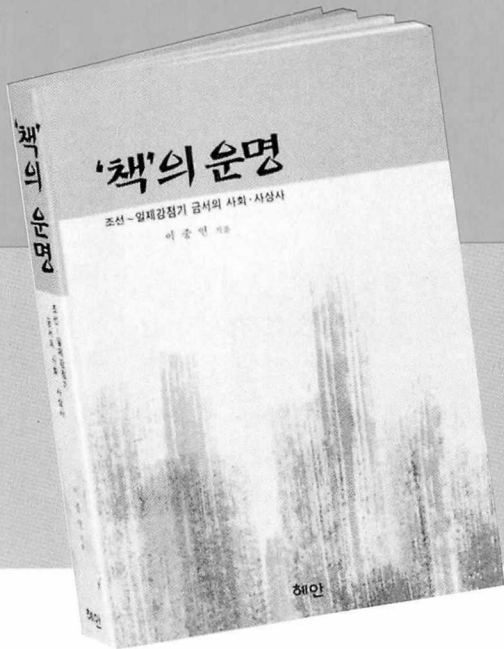
“사상사가 책의 ‘내용’을 통해 사상의 형성과 전승과정을 따져 묻는다면, 금서를 통한 역사해석은 책의 생산과 유통, 수용과정에 주목함으로써 당대의 사상적·문화적 지형도를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특히 문화적 전파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씨는 그 예로 실학을 든다. 사상사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 후기 실학은 당대의 위기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근대지향적 학문이었다. 하지만 ‘전파’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사정은 달라진다. 실학이 지식인의 학문으로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감록》과 같은 비합리적인 비결류가 대중들에게 널리 퍼짐으로써 민중적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다.

금서의 역사는 문화적 독점 해체의 역사

“금서의 역사란 한마디로 지배권력의 문화적 독점을 해체시키는 과정입니다. 금서란 권력이나 지배체제가 사상이나 문화를 독점하는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점체제는 역사의 운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몰락과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사상적·문화적 독점과 사상통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두가지 점에서 조선의 특수성을 꼽는다. 조선시대에는 서양의 로마 가톨릭처럼 공식적인 검열기구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점, 책을 금서로 지정하는 데 권력층 내부에서 오랫동안 논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그것이다.



해안/A5신/560면/20,000원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금서정책은 상당히 유연했습니다. 물론 성리학적 질서에 대항하는 서적이나 사상은 탄압받았습니다. 계축옥사 때 《홍길동전》 같은 참서를 지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허균이 한 예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식인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시키려 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설공찬전》을 금서처분하되 저자인 채수를 파직처분만 내리고 극형은 피한 것이 대표적이죠.”

조선시대를 통틀어 눈에 띄는 것은 사상투쟁과 정치투쟁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조선전기에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불교와 도교서적이 이단으로 배척된다. 조선중기 이후부터는 사림과 내부에 권력이 재편되고 봉당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양명학과 서학서 등이 수난당한다. 이런 박해와 수난의 막후에는 지배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사회를 지배한 사회운영 원리는 성리학적 질서였습니다. 지배계층들은 이것에 위배되는 책을 금지시켰습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주자학적 지배질서가 자리잡음에 따라 사상통제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지배계층 내부에서 탈주자학적 학문이 성장하고 있었죠. 또한 아래로부터 민중의 사상이 지배권력의 문화독점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경서의 세계’에서 ‘소설의 세계’로

권력의 문화적 독점을 깨트리는 일등공신으로 그는 문화 전파자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조선시대에 서적보급은 제한적이었다. 정부기관에서 많은 책을 발행했지만 부수가 제한적이었고, 배포대상도 사대부나 유생으로 국한됐다. 도서유통을 위한 서사(書肆, 오늘날의 서점)의 설치논의도 꾸준했지만 조선 후기까지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조선 후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각본’이 출현한 점과 민간의 도서유통 경로로서 세책점과 서점이 등장한 것은 근대적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정권에서 소외된 중인계층이 독자적인 문화전파 집단으로

등장해 ‘경서의 세계’와는 다른 ‘소설의 세계’를 구축해나갔죠.”

문자의 전투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시대는 ‘소설의 세계’가 ‘경서의 세계’를 밀어내는 형국이다. 소설의 세계는 조선의 문화적 독점을 내파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유교적 지배질서 아래서 유학자들의 독서는 경서와 사서에 국한된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중인층을 중심으로 패설과 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히면서 경서의 세계를 뒤흔들게 된다. 소설이 중세해체기의 신흥예술이란 점에서 중인층이 비교적 자유롭게 소설을 읽는 것은 중인층의 신분상승 욕구 및 신분상승 운동과 연계된다.

한편 중인층은 조선후기를 지나 애국계몽기에 근대적 출판운동의 길을 열어놓는다. 대한제국기는 책의 역사에서 한 정점에 이른 시기였다. 그것은 마치 소설의 운명을 예감한 등불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과 같았다. 이때는 전근대적 지배권력의 사상통제가 해체되고 사상의 자유가 싹을 틔우던 혁명의 시기였다. ‘출판운동’의 차원에서 신식출판이 발전함에 따라 한글서적이 간행되고 책값도 하향조정됐다. 결국 문화적 역량을 독자적으로 쌓아가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문화적 근대화의 싹은 잘려버립니다.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검열에 따라 출판은 왜곡과 파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일제강점기 책의 역사는 수난과 오욕으로 점철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사랑 타령류의 소설이 번성하고 족보나 문집들만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권력이 무력하듯 일제는 패망의 길을 걸었죠.”

몇몇 서지학자나 출판학자들의 영역으로 방치되다시피 해온 금서의 역사를 역사학자의 엄밀한 실증정신으로 복원해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학계 내외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세는 이런 평가를 부담스러워한다. 되레 자신의 한계를 나열하는 데 열을 올린다.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데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표현언어를 갖지 못한 민중들의 독서 실태를 밝히지 못한 점을 못내 아쉬워한다. — 박천홍 기자

성리학적 교화서인 《소학》이 금서가 된 내력

《소학》은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 교화서다. 그런데 《소학》은 한때 금서로 묶여 탄압을 받은 기구한 운명을 겪기도 했다. 조선 초 이른바 ‘야당’이었던 사림파는 《소학》을 최고의 개혁 이념서로 수용했다. 《소학》에서 향촌사회를 안정시킬 실천적 이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종종 때 권력을 쥐게 된 조광조와 김안국은 《소학》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곧 훈구파의 역공이 시작됐다. 조광조를 실각시킨 기묘사화로 《소학》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됐다. 《소학》의 운명과 조광조의 정치적 운명이 궤를 같이 했다. 선조 1년에 조광조가 신원되면서 《소학》도 사회적으로 복권됐다. 사림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고 성리학이 사회지배적 학문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에 따라 《소학》은 조선 후기를 지배하는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